

DJ사후 2년 위기의 우리사회... 대안은 없나

민주주의 역행 맞서 DJ정신 살려야

<아권통합·남북화해·동서회합>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았지만 유지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눈앞의 이익이나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보다 큰 미래를 볼 것'을 주문했다.

◇아권 통합=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권 정당들은 '현실적으로 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선을 긋지 말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 6·2 지방선거 및 4·27 재보궐 선거 등을 겪으면서 기존의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보다 완전한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일부의 민주당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대통합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이 소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경과를 지켜보느라 전체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도 "정당을 달리한 채, 단순히 후보만 단일화하는 선거연대는 승산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선거법 개정을 공동공약으로 걸고 '한 지붕 다섯 기둥'으로 힘을

선거때만 되면 정치적 갈등 확대 재생산 눈앞 이익 네 탓 공방 말고 큰 미래 볼 때

모으고 일단 연합정당 안에 모여서 다수당, 집권당이 돼 정당득표율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도 바꾼 다음에 분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1997년과 200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보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사리 당선됐다. 김대중 후보는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했던 김중필과 손을 잡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며 "2012년 우리는 보수에 손을 내밀지 않고, 민주와 진보진영이 힘을 합치면 단독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도 손을 잡지 못해서 집권에 실패한다면 민족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북 화해=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내년 핵 안보 정상회담에 북한을 초청하고 싶다면, 대북정책 전환의 가장 확실한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풀어야 한다"며 "그것이 북한을 중국에 잃어버린 정부,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을 멀어지게 한 정부, 결정적으로 분단

을 고착화시킨 정부라는 역사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원 한겨레통일재단 이사장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4가지는 대북시각·대북정책·통일정책·북핵전략인데, 그 중에서 대북시각이 뿌리다. 거기에 따라 나머지 3가지가 달라진다"며 "즉,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붕괴입박론'을 받든나, 아니면 북한도 중국·베트남처럼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점진적 변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붕괴론에 입각한 강경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점진적 변화론'의 입장에서 화해·협력, 평화통일 정책, 핵문제 해결을 꾸준히 추구했다면 상당한 성과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동서 회합=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그동안 호남과 영남의 정치적 갈등의 역사를 고쳐려는 노력이 없었다. 민주당도 영·호남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갈

등을 부추기고 고착화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에서도 지역갈등의 가·피해자가 누구냐를 떠나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총·대선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더라.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살펴서 화합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만 나서서 게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를 포함해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파들이 진정 어떻게 화합시킬지 고민해야 한다"며 "시혜적인 이벤트 같은 것 말고 정치인으로서 화합을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소홀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장파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이 변하지 않으니 영남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해야 한다"며 "적어도 한나라당은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는 늘 호남에 상처를 줬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이번(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배제론)처럼 후배 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과 통합으로 민주진보정부 수립하자 가칭 <혁신과 통합> 제안자 모임 및 기자회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제안자 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야 통합추진모임, 아권 대통합 촉매제 될까

민주 '환영'... 민노 진보 '시큰둥'

시민사회 등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한 아권통합추진기구인 가칭 '혁신과 통합'이 17일 태동을 알리면서 지지 부진한 아권 대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혁신과 통합은 이날 오전 제안자 모임 갖고 통합의 대원칙과 향후 통합운동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모임에는 이해찬 상임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경남지사,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서울대 조국 교수 등 300여명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혁신과 통합은 다음달 초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대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전

국 순회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식 출범 때까지 구체적인 통합 및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이날 제안문에서 "말게는 1945년 해방, 1960년 4·19 혁명의 희망이 분단과 전쟁, 군사쿠데타로 좌절됐고, 가깝게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으로 파탄 났다"며 "이런 역진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또 "진보적·개혁적 정치세력들은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통합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통

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아권통합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뒤로하고 최대한 양보하고 희생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이번 모임의 문제의식도 우리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시민사회의 총정은 이해하지만 정당 통합이 외부 권고에 있다고 해서 바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고, 국민참여당 이백만 대변인은 "현재 민노당, 진보신당과 통합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정치권 거물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서거 2주기를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의 광주·전남지역 정치인 가운데 오는 2012년 대선은 물론, 2017년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권의 유력 주자군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신안 출신의 천정배 최고위원이 대선 도전을 천명하고 박주선 최고위원도 대선 도전을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은 아권의 대표 주자로 서기에는 약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차차기인 2017년 대선 주자군 가운데서도 광주·전남 출신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아권에서는 차차기 대선주자군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꼽고 있으며 이인영 최고위원 등 일부 386출신 정치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허리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며 광주·전남 정치권의 미래를 건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이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력을 키워가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

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등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 전출된 일부 386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하고 비전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바탕으로 재공천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2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이 6명, 재선이 7명이나 되지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의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일부 초선 국

회의원들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힘있는 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줄을 서는 눈물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는 이미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인물보다는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가치와 철학을 주도하며 광주·전남 정치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사를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역량은 '현재의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역량'으로는 미래의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정치적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실 안주 철학·비전 한계 유력 대선주자 한 명 없어

국회 남북발전특위 개성공단 방문 신청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박주선 의원)가 최근 통일부에 특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 등 29명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고 박 위원장 측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26일로 예정된 이번 방문 신청은 박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한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도 출연,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 방문 승인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말이나왔으니 기대 한번 해봅시다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이젠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8월 28일(일) ~ 8월 29일(월) 1박2일 ★45홀 패키지 ₩369,000. 8월 29일 ~ 10월 28일 까지 주중 1박2일 ★36홀. 1. 해비치 리조트 32평(4인1실) 36홀. 2.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홀. 3. 네이버후드 호텔 (2인1실) 36홀.